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담배관련 포괄적 금지조치를 담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세계 40개국 정부의 서명에 따라 발효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4일 밝혔다.

WHO의 레인 심슨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한지 일주일 여만에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보츠와나, 이란,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 40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며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조약 발효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1일 4년간의 진통 끝에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40개국 이상의 서명과 비준을 받아야 발효, 해당국에서 법제화가 가능하다.

이 협약은 자국 헌법에 따라 5년 내에 모든 담배 관련 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종 흡연규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담배경고 형식과 포장, 미성년자의 담배자판기 접근 금지, 담배회사의 책임,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마련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WHO는 내년 6월30일부터 한 달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2차 서명을 접수한다.

(조선일보 2003. 6. 25)

폐렴·간경변환자 장애인 혜택준다

- 인공항문·간질도 해당

만성중증호흡기 및 간질환, 안면기형 등 다섯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법정 장애인이 되고 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호흡기 질환에는 심한 천식이나 폐렴, 진폐환자 등이, 간 질환에는 간경변, 간염, 만성간염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장애유형에는 장루(인공항문)나 요루(인공오줌보), 간질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13일 공포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 다섯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11만 8천여명에 달한다.

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두 장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의의 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장애인 카드가 나온다. 카드가 나오기 전에 혜택을 보려면 동사무소의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모든 장애인은 LPG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50여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앙일보 2003. 6. 24)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에 암병원 지을것"

오는 2008년까지 전국 9개 광역 시·도에 지역 암센터가 설립되고, 이중 3곳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암병원과 응급의료센터, 재활병원 등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따라 일단 내년에 경상대와 전남대, 전북대 등 3개 국립대학에 200병상 규모의 지역 암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별로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각각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별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암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지역 암센터가 설립되면 연구비와 시설비 등이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병원 등의 경우 내년에 50병상 규모의 병원 3곳을 짓기로 하고 6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8개 정부부처가 갖고있는 공공병원을 연계해 지원체제로 바꾸겠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심병원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을 하위 거점병원으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보건소와 연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조정 등과 관련, "오는 8월말께 정부안이 나오면 9월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3. 6. 13)

복지부, 담뱃값 인상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한 갑당 평균 3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불가상승을 불러온다며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갑당 3000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담뱃값이 물가인상에 별 영향이 없고, 담뱃값과 물가인상을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재경부 등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재경·교육·환경부 관계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담배 한 갑 가격에는 담배소비세(510원)·부가가치세(10%)·국민건강증진부담금(150원)·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10원)뿐 아니라 지방교육세(255원)·환경폐기물부담금(4원) 등도 포함돼 있어 복지·재경부뿐 아니라 교육·환경부도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복지부 오대규(吳大奎) 건강증진국장은 “프랑스·룩셈부르크·포르투갈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논리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리보다 우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담배 항목을 제외했다”며 “우리도 이같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 6. 13)

[학교·병원 등] 7월부터 흡연펜 범칙금

7월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등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에서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5일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나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 상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000㎡ 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교통관련시설 승객대기실과 선실, 철도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철 승강장, 목욕장 탈의실, 연면적 1,000㎡ 이상 정 부형사 사무실과 민원인 대기실, 국민건강증진법령 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장, 복도, 화장실 등도 추가 지정됐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자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이

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2003. 6. 25)

무거운 책가방 어린이 자세 망쳐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어린이들의 자세가 망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 대학의 하이다 올로프 박사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스포츠의학 연구발표회에서 “8~9세 어린이 13명에게 4~6kg의 책가방을 메고 통학거리와 비슷한 400m를 걷게 했더니 모든 어린이들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고개가 숙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로프 박사가 어린이들이 가방을 메고 걸을 때와 그냥 걸을 때의 자세변화를 고속카메라로 찍은 결과 책가방이 너무 무겁거나 몸이 지쳤을 때 어린이들의 턱이 거의 가슴에 닿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가방무게는 보통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메는 가방무게인 9~11kg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올로프 박사는 “무거운 가방을 멘 어린이들이 어른들처럼 잔걸음을 걸어서 가방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지 살펴봤지만 여전히 같은 보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신 어린이들은 가방이 무거워질수록, 오래 걸을수록 상체를 점점 앞으로 숙였고 더 지치면 고개를 떨궜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등·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목도 아플 수 있다”고 올로프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가방과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시간대 물리, 재활의학과와 앤드루 헤이그 교수팀은 지난 2000년 가방무게와 통증은 별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헤이그 교수팀이 어린이 18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생 15%와 중학생의 46%가 등 통증을 갖고 있었지만 가방을 메는 것과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반면 델라웨어주 월링턴시 알프레드 듀폰 어린이 병원 정형외과의 리처드 크루즈 박사가 지난해 12~18세 청소년 1천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방을 메는 것과 허리통증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니는 어린이들은 등이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몸무게 대비 가방무게가 무거울수록 훨씬 더 위험이 높았다.

(동아일보 2003. 6. 11) 